

순천교육청, 대립토론과 함께하는 '고전독서인문 캠프' 운영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70명 대상 고전독서연계 대립토론으로 생각하는 힘과 미래역량 길러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순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컨벤션홀에서 '2023. 여름방학 고전독서인문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고전독서인문 캠프는 임종윤 교육장이 평소 강조하는,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한 토의토론 능력으로 학생들의 고등 정신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독서활동과 연계한 대립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여 가꾸어가는 미래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학생들은 캠프 운영 기간동안 독서와 토론, 글쓰기가 함께 어우러진 게임형 대립토론을 체험하게 된다. 캠프의 주요 내용은 ▲ 고전 읽기 활동 ▲ 게임형 대립토론 방법 익히기 ▲ 5단계 주장하는 글쓰기 ▲ 게임형 대립

토론 실전 등이다. 고전독서인문 캠프에 참여한 매안초 5학년 학생은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토론을 하니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되어, 혼자일 때 보다 깊이 생각하게 되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윤 교육장은 캠프 개강식에서 "미래사회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그것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독서와 토론이다."며 "이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노동초, 물놀이 체험행사 개최

학부모회 주관,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

보성군 노동면에 위치한 노동초등학교는 지난 12일 노동가족 물놀이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노동초등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2년째 진행되었으며, 노동초등학교 전교생과 유치원생,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가 노동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노동가족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노동가족 물놀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날렸다. 또한 행사장에는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점心和 다양한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 안전요원들이 봉사해주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노동초등학교 6학년 양○○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물놀이를 하니 너무 즐거웠습니다"며 "더운 날씨에 학교운동장에서

시원하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고 말했다.

노동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조○○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노동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년에도 있을 노동가족 물놀이체험을 예고했다.

노동초등학교 교장 이○○님은 "형편상 피서를 가기 어려운 가정의 있는데, 학부모회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노동가족 대부분이 노동초등학교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노동초등학교 가족 물놀이 체험행사는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보성=김명순 기자

화순외국어체험센터, 여름방학 심화영어캠프 LingoLeap 실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진행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2023. 화순외국어체험센터 여름방학 심화영어캠프 LingoLeap'를 실시했다. 화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희망 학생 3학급으로 구성되어 운영된 이번 캠프에서는 영어 원어민교사 2명과 한국인 교사 2명이 학생들과 매일 4시간 동안 밀착 지도하며 개별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했다.

Language Builder and Speaking Activity 시간에는 어휘력 향상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했고, Reading and Writing Activity 시간에는 글을 읽고 배운 핵심 표현을 다양하게 문장

으로 적용시켜 활용해보는 연습을 했다. 또한 Snack and Play 타임에도 원어민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캠프에 참여한 천태초 서○○ 학생은 "작년 캠프에서는 놀이와 요리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번 캠프는 심화 캠프로 영어 실력향상을 위한 수업을 해서 내가 더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래 교육장은 "ChatGPT를 비롯하여 AI의 번역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는 사회이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소통은 언어의 번역 그 이상의 능력이 요구된다."라며 "AI를 언



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함양 지도 외에도 직접 원어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 성산초, '가족과 함께 3H in 장도' 문화콘서트 참여



여수 성산초는 지난 12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일환으로 예술의 섬 장도 내 장도아트카페에서 총 20가족 58명이 참여, 감성충만! 자연만끽! 여름바다와 함께 떠나는 가족문화콘서트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총 20가족 58명이 참여, 가족문화콘서트 진행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프로그램과 연계한 "가족과 함께 3H in 장도" 프로그램으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 남해안발전연구소가 주관하여 힐링(Healing), 희망(Hope), 행복(Happiness)이라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피아노 콘서트, 여름의 동반자인 부채에 간직하고 싶은 글귀를 적어 보는 나만의 캘리그래피 부채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참여한 가족들은 섬에 연결되어있는 진섬다리(하루에 두 번씩 물에 잠김)를 걸어오면서

바다를 보며 환호하였고, 다리 중간중간 한글 솟대, 동물 솟대 등 작품 감상도 하며 가족들과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남해바다가 창밖으로 드넓게 펼쳐진 장도아트카페에서 '이혜란' 피아니스트의 온몸으로 연주하는 피아노연주에 맞춰 몸을 으쓱으쓱, 콧노래도 흥얼거려보고 여름바다 풍경과 어우러진 피아노 선율에 모두가 행복해하였다.

또한 캘리그래피로 부채 만들기를 할 때에는 나만의 멋진 글귀를 찾아 조금이라도 예쁘게 써 보려고 집중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여수=김현근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